

DJ비서실장 vs 盧비서실장... '野의 미래' 걸린 승부

새정치 당권경쟁 '빅2' 관전포인트

새정치민주연합의 2·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이 지난 30일 마감되면서 본격적인 당권 경쟁이 시작됐다.

정치권에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박지원 의원과 문재인 의원이 오는 7일 컷-오프(후보 압축)를 통과한 뒤, '양강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은 호남과 영남,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경륜과 혁신 등에서 미묘한 정치적 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여기에 전대 결과에 따라 새정치연합의 미래와 두 사람의 정치적 명망이 크게 엇갈릴 수밖에 없어 말 그대로 '진검 승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물러설 수 없는 '빅 매치'의 관전 포인트를 조명해본다.

◇호남 Vs 영남=박지원 의원(목포시)과 문재인 의원(부산 사상)은 당내에서 각기 호남과 영남의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주자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다는 점도 'DJ의 적자'와 '노의 남자' 간의 미묘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당장 두 사람의 대결 결과는 당내 역학구도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민주당은 호남이 중심이 됐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열린우리당 창당을 계기로 호남의 정치적 비중은 점점 약해져 왔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전대를 앞두고 호남 당원들을 중심으로 '호남 정치권의 재기'를 열망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박 의원 진영에



박지원

새정치 민주연합 당권경쟁 '2강 후보'

- ▷ 1942년 전남 진도
- ▷ 목포 문태고
- ▷ 단국대 경영학과
- ▷ 김대중 정부 대통령비서실장
- ▷ 민주통합당 원내 대표
- ▷ 14·18·19대 국회의원

문재인

- ▷ 1953년 경남 거제
- ▷ 부산 경남고
- ▷ 경희대 법학과
- ▷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장
-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부산 사상구)
- ▷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

■ '강한 야당'의 박지원

“호남정치 부활 이끌고

계파 청산...수권정당 만들겠다”

서는 지역 대결 구도는 철저히 배격하지만 전국에 분포한 호남 당원들의 열망은 적극 대변하겠다는 입장이다. 돌아선 호남 민심을 잡지 않고서는 정권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문 의원 진영에서는 호남 정치력 복원은 지역적 선택이 아닌 '혁신과 변화'가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그것이 시대를 이끌었던 '호남 정신'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 민심을 얻지 않고서는 정권 창출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호남과 영남이 함께 밀고 끌어올려 정권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륜 Vs 혁신=박지원 의원은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창출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문화부장관, 청와대 수석과 비서실장, 원내대표 등을 지낸 화려한 경력은 정치적 판단력과 리더십이 요구되는 대표로

■ '변화 혁신'의 문재인

“당 못살리면 정치인생 끝낼 각오

당대표 되면 총선 불출마할 것”

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새정치연합을 강한 야당으로 탈바꿈시켜 세 번째 정권 창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당내 어떠한 계파에 속해있지 않다는 점에서 대표로 선출된다면 계파 갈등을 종식시키고 통합의 리더십으로 수권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박 의원은 지난 28일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자리에서 “정권을 다시 찾는 일 외에는 어떠한 사심도 없다”며 “당의 대선 주자들이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가까이 희생하는 당 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의 목적인 경륜 속에 묻혀있는 과거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맞서, 문 의원은 당의 변화와 혁신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당

의 변화와 혁신이 우선 돼야 정권 창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29일 출마 선언에서 12차례나 '변화'를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문 의원은 “당을 살려내는 데 끝내 실패한다면 '정치인 문재인'의 시대적 역할은 끝이라는 각오”라며 “차기 총선 전까지 새정치연합을 신제품으로 만들겠다”고 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시스템 공헌을 통한 계파 해체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대표로 선출된다면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러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문 의원이 혁신을 지렛대로 강고한 '친노 프레임'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역전 Vs 독주=양강 구도라고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의원의 박빙 우세를 점치고 있다.

문 의원이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계의 수장인데다 대선 주자로서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의원 진영에서는 '바다 공기가 다르다'며 이미 역전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전국 순회 강연 등에서 나타난 박 의원에 대한 인기와 반응이 기대 이상이라는 것이다.

친노 계파주의에 대한 견제와 함께 대권이 아닌 당권은 박지원 의원에 맡겨볼 만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호남을 중심으로 사실상 그의 마지막 도전에 대한 강한 지지세가 형성되고 있으며 전국의 비노 성향 당원들의 결집이 뜨겁다는 주장이다.

특히 영남과 강원 등 취약지역 비례대표 의원 할당 공약은 지역 당원들에게 긍정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문 의원 측에서는 혁신과 변화의 바람으로 무난하게 대표로 선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원과 국민의 요구가 혁신과 변화라는 점에서 정치 일생을 걸고 당권 도전에 나선 그의 혁신에 대한 진정성이 결국 평가 받으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심상치 않은 호남 민심과 비노 진영의 견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 의원 진영에서는 그의 상징인 진정성을 토대로 이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건전 진보·합리 보수 함께하는 중도개혁정당 표방”

박주선 대표경선 출마 선언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당내 비노(비노무현)·중도 성향 모임인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의 사실상 단일후보 자격으로 출마를 해 경선 초반 형성된 양강구도를 깨뜨릴 수 있는 다크호스로 등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계파정치 청산을 통한 정권교체”를 위해 엄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새정치연합은 건전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함께하는 중도개혁정당이어야 한다. 경도되기 쉬운 당의 정체성을 바로



박주선

“전당대회를 통해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들의 싸움으로 인해 중도개혁성향 의원들은 당 분열을 우려하고 있다”며 문재인, 박지원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또 “박주선은 수많은 시련과 고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문재인 의원을 겨냥, “2012년 대선 패배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이번 당 대표선거에 나서고 있다”며

“실패에 책임지지 않는 리더십, 국민과 당원의 이익보다 계파를 우선시하는 리더십, 당권을 바탕으로 대권의 발판을 삼으려는 리더십으로 당이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과 당원을 위한 정당, 승리하는 정당, 생산적인 정책정당을 만들어 국민 지지와 신뢰를 얻고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다

짐했다.

박 의원은 “국민과 당원을 위한 정당, 승리하는 정당, 생산적인 정책정당을 만들어 국민 지지와 신뢰를 얻고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다

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난을 극복한 불사조이며 오탁이”라며 “술한 시련과 역경, 정치적 탄압을 이겨 낸 진실과 용기의 리더십으로 당을 위기에서 구하고, 승리의 역사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실패에 책임지지 않는 리더십, 국민과 당원의 이익보다 계파를 우선시하는 리더십, 당권을 바탕으로 대권의 발판을 삼으려는 리더십으로 당이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과 당원을 위한 정당, 승리하는 정당, 생산적인 정책정당을 만들어 국민 지지와 신뢰를 얻고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다

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주선, 중도 단일후보... '빅2 불출마' 성명과 지원도

조정태 “세대교체론” 이인영 “운동권 지지” 앞세워

컷오프 누가 통과하나

새정치민주연합 당권경쟁이 초반 박지원, 문재인 의원의 양강구도로 흐른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남은 한 장의 예비경선(컷오프) 통과 여부를 놓고 박주선·조정태·이인영 의원이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오는 7일 실시되는 예비경선은 국회의원·시도지사·시도의회 의장·상임고문·당무위원 등 400여명의 중앙위원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일단 호남 출신인 박주선 의원이 경륜이나 지명도 면에서 약간 앞서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다. 하지만 박지원 의원과 호남표를 양분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 따라서 박주선 의원은 타 지역



조정태 의원



이인영 의원

중앙위원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 중이다. 특히 김동철·김영환 의원의 불출마로 자연스럽게 중도 단일후보가 된 박 의원은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과 '빅2 불출마'를 주장했던 '성명파' 의원들을 지지기반으로 예비경선 통과에 전력을

쏟고 있다. 중도 성향의 조정태 의원도 계파 청산과 세대교체론을 앞세워 이번을 연출하겠다는 각오다.

친노(친노무현)계의 '저승사자'로 꼽히는 조 의원은 “후보들 중 패권화 된 계파를 확실하게 청산할 수 있는 최적의 적임자가 바로 조정태”라고 주장했다.

고 김근태 의원 계보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연) 출신인 이인영 의원은 80년대 운동권 그룹 등의 지지를 토대로 컷오프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조 의원과 함께 상대적으로 젊다는 게 강점이지만 그동안 당 주류 편에서 서서 당 혁신을 외면해 왔다는 비판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당뇨병 환자도 부담없이 드실수 있는

천연설탕 토디팜 재거리

순수함을 간직한 청정지역 미안마의 자연산물

식약청 검역번호 41762-14-002447J

단맛을 내는 "모든음식"에 사용하세요

런칭 기념 2+1

- 시럽 프리미엄(750g) 28,000원
- 시럽 일반(750g) 22,000원
- 가루(1kg) 38,000원
- 고체(1kg) 36,000원
- 강황(500g) 15,000원

각종류별도/시럽/가루/고체 •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 광주은행 040-121-698715 네이처코미

약으로 쓰이는 아자수액을 끓여 만든 오리지날 천연설탕 미안마 재거리

1. 낮은 당 수치로 당뇨병 및 고혈압 예방
2. 신경계와 심장에 좋음 / 피를 맑게 함
3. 낮은 열량 / 다이어트 효과
4. 기력회복 / 정력에 도움
5. 소화불량 / 변비예방
6. 폴리페놀 성분 / 아카시아 벌꿀의 20배 /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7배 / 비타민C,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

건강 100세를 기원하는 천연식품기업

네이처코미

주문상담 **1899-8752**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6번길 7-1 금양빌딩 603호 네이처코미